



## 손기정 가슴 '일장기' 지운 고하 송진우 선생 서거 78주기 추모식

기사승인 [2023-05-07 10:07]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서 거행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고하 송진우 선생의 탄신 133주년 및 서거 78주기 추모식이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거행된다.

기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강연,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선생은 1915년 김성수를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해 학감(學監)이 된 후 곧 김성수의 뒤를 이어 제10대 교장으로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했다.

1919년에는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 측과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특히 3·1운동 후 이 운동을 초기에 기획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돼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 1921년 9월 14일 '주식회사 동아일보'가 창립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 언론인으로서 물산장려운동 및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1925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국내 대표로 활약한 선생은 1926년 국제농민회 본부에서 조선 농민에게 전하는 3·1운동 7주년 기념사를 3월 5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가 무기 정간 처분을 받고 재판에 회부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선생은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 추진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 지운 우승 사진을 게재해 제4차 무기 정간을 당하였고, 총독부의 압력으로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조직해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다가 한현우에게 암살당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선생님의 희생과 독립 정신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송고한 애국훈으로 새겨져 있다"며 "정부는 송진우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헌신적인 생애와 정신을 우리 미래세대들이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종 기자 [sjlee.asiatoday@gmail.com](mailto:sjlee.asiatoday@gmail.com)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